

기쁨의 언덕으로 2020 년 1 월호 “잠언, 전도서, 아가” 소그룹 교재 – 인도자 가이드

소그룹 교재 1: 1 월 3 일

- 제목: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지혜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본문: 잠언 1:20-33
- 찬송가
 - 1. 새 366 장 (통 485 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2. 새 9 장 (통 53 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 3. 새 579 장 (통 304 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 여는 질문: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누군가의 조언이나 통찰을 듣고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반대로 그것들을 무시하였다가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서로 한번 나눠봅시다. *(이 질문은 여는 질문이기에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례들을 나누면 좋습니다. 먼저 소그룹 리더가 2020 년 한 해를 돌아보며 코로나 19 와 관련하여 얻었던 귀중한 지혜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 본문 이해: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외칩니다. 바로 그는 “지혜”입니다. 얼마나 그가 다급했던지 시끄러운 길에서도 외치고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도 소리칩니다. 그가 외치는 대상은 어리석은 사람들, 거만하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혜와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22 절). 그들은 자신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재앙과 두려움의 시기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6 절). 그것은 불가피한 재앙이 아니라 미리 대비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비록 그 재앙이 광풍 같이, 폭풍 같이 갑자기 임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광풍과 같이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거나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위기는 다가오는 재앙이 아니라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만한 마음에 있습니다 (24-25 절). 그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29 절). 바로 여기서 그 지혜가 누구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의인화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너희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24 절). 바로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외쳤던 그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다가올 재앙과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애타게 부르짖었던 자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세대에 대해 안타까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눅 7:31-32). 코로나 19 라는 우리 시대가 처음 맞이하는 재앙과 위기의 시기에 광장과 길거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주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폭풍과 같이 임한 재앙의 시기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 1:33)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말씀 속으로

- 1. 누가, 어디에서 부르며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20-21 절)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 머리에서,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 2. 그 외침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24-26 절)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음. 그리하여 재앙이나 두려운 일, 공포가 닥칠 수 있음)*

- 삶 속으로

- 1. 지난 한 해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들려온 주님의 지혜의 음성이 있지는 않았나요? 누군가의 조언이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 숨겨진 그분의 소리를 분별해 봅시다. *(지혜는 우리 삶의 어느 곳이든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 들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3-5 월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 각 가정에서 예배했던 기간들을 통해 깨닫게 된 진리들은 무엇입니까?)*
- 2. 눈과 귀가 닫힌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봅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그들의 닫힌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아무리 지혜가 삶의 각 처소에서 울려 퍼져도 듣는 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지혜를 들을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공동체 안에 마음이 닫힌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 암송 구절: 잠 1:33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 자녀와 나눔:
 - 새해를 맞이하여 구하고 싶은 주님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지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분별력, 판단력, 신중함, 식견,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등이 그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분별력과 판단력, 신중함과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모두 발휘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교재 2: 1 월 10 일

- 제목: 말한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말하는 사람
- 본문: 잠언 11:1-14
- 찬송가
 - 1. 새 465 장(통 523 장) 주 믿는 나 남 위해
 - 2. 새 189 장 (통 181 장) 진실하신 주 성령
 - 3. 새 90 장 (통 98 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여는 질문: 지난 삶을 돌아보며 내가 배웠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 정직, 열정, 책임감, 팀워크, 열린 마음, 부지런함...) (*가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성, 균형, 공동체성, 헌신, 긍휼, 협동, 일관성, 창조성, 탁월함, 관용, 용서, 유머, 정직, 겸손, 혁신, 충성, 사랑, 배움, 친절, 직관, 대중성, 적극성, 믿을만한, 건강, 비전, 고유성, 다재다능 등이 그것입니다. 서로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알면 갈등이 줄어들고 상대방을 좀 더 존중히 대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핵심 가치 3 가지를 나눠보십시오*)
- 본문 이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시고 그를 기뻐하십니다. 반면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쓰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1 절). 어떤 이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편법과 속임수를 지혜로 포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직한 삶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언 기자는 사기꾼은 결국 속임수를 쓰다가 제 꾀에 빠져 멸망할 것이며,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 5 절). 제임스 쿠제스, 베리 포스너가 쓴 Leadership Challenge 에 보면, 전 세계 10 만명 이상이 참여한 '존경 받는 리더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Admired Leaders'이 소개 되어 있습니다. 오직 4 가지 특성만이 지난

30년 넘게 이어진 가장 확실하고 두드러진 특징으로써 60% 이상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 4가지는 정직한(honest), 유능한(competent), 영감을 주는(inspiring), 미래 지향적인(forward-looking)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직"은 다른 어떤 리더십 특성보다도 더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정직은 신뢰의 기초이며, 정직을 바탕으로 관계가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이 정직하다고 느낍니다. 설교한 것을 실천할 때,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할 때, 말과 삶이 일치할 때, 약속한 것을 이행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그를 신뢰하며 그를 자발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잠언 11장은 정직한 자의 복을 다루면서 14절에 이르러서는 지도자(guidance)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것이지요. 문맥상으로 보면 그 지도자는 속이는 저울을 쓰는 사기꾼이 아니라 언행이 일치한 정직한 지도자입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 백성과 나라는 삽니다. 그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사람들의 앞과 뒤에서 동일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9절). 반면 정직하지 않은 지도자는 다른 이들을 험담하며 남의 비밀을 누설합니다(13절). 세월이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사람은 바른 길로 가며 또한 다른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 말씀 속으로

- 1.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또한 기뻐하시는 것은 각각 무엇입니까? (1절)

(주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정확한 추는 기뻐하십니다)

- 2. 성읍은 누구의 축복으로 인해 흥한다고 했습니까? (11절) *(정직한 사람)*

- 삶 속으로

- 1. 혹시 내 삶에 '속이는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에 감추어진 것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정확한 저울추는 무엇일까요? *(사람 안에는 양심이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르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속이는 저울은 적게 팔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짓 수단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인가를 속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보면 명성을 얻기 위해 속일 수도 있으며, 영적으로 보면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속이는 저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가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적, 사회적, 영적인 면에서 속이는 저울은 무엇일까요?)

- 2. 정직한 자로 인해 도시는 흥왕합니다(11 절). 누군가가 정직했기에 다른 이들에게, 공동체에게 복이 된 사례들을 나눠봅시다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정직한 사람으로 인해 마을이 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정직하게 낸 세금으로 인해 속이는 이들보다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가 재정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에 문제가 전혀 없었음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사람들로 부터 신뢰를 얻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직해서 고난을 당한 사례도 있겠지만, 복을 얻은 사례들을 나누어 봅시다)*
- 암송 구절: 잠언 11:1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 자녀와 나눔:
 - 1. 혹시 정직하지 못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을 속이고 싶은(cheating) 적이 있었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었나요?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속임이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속임은 하지 말라는 것을 몰래 할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안해도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진리는 드러납니다. 아이들은 시험이나 성적으로 인해 때로는 선생님을 속이고 부모님께 진실을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정직”에 대한 교훈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물어봅시다)*

소그룹 교재 3: 1 월 17 일

- 제목: 사람을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 본문: 잠언 18:4-21
- 찬송가
 - 1. 새 203 장 하나님의 말씀은
 - 2. 새 204 장(통 379 장) 주의 말씀 듣고서
 - 3. 새 305 장 (통 405 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여는 질문: 누군가의 격려나 칭찬의 말을 듣고 힘을 얻어 힘든 시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나요?
- 본문 이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들을 화합하게도 하고 다투게도 하며(6 절), 그들을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합니다(7 절).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21 절).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입어 평생토록 그 아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무심코 던지는 “바보 같다” “쓸모 없는 녀석”이라는 말들로 인해 아이들은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미국의 어떤 통계에 의하면 감옥에 갇힌 이들의 90%가 어린 시절에 “넌 나중에 감옥에 갈거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분노하며 내뱉은 말이 그 아이의 심령에 심겨졌고, 말의 열매가 맺혀 그 영혼의 마음 밭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메마르고 황폐해진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은 물과 같고 샘과 같은 지혜의 말로 살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4 절).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을 믿지 못했고 심지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행 9:26). 그 때 사울을 맞이해 주고 받아주며 그를 변호해 준 사람이 있으니 바로 바나바입니다. 격려와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의 뜻처럼, 바나바의 말은 사울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분열될 수 있는 공동체에 화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사울을 불신하고 그의 과거를 바탕으로 배척하려고 했을 때,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 주고 지지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의 말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살리는 말은 사울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훗날 회심한 사울의 입술을 통해 셀 수 없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생명을 살리는 깊은 물과 같습니다. 그 물의 근원은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메말라 죽어가는 이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 말씀 속으로
 - 1. 명철한 사람의 말은 무엇에 비유되고 있나요? (4 절) *(깊은 물)*

- 2. 말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요? (21 절)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을 정도이다)*
- 삶 속으로
 - 1. 나는 어떠한 점에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격려와 위로는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특히 코로나 19 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는 우울증과 큰 낙망에 빠진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마가와 사울을 지지해 줌으로써 그들이 예전보다 성숙하고 선교에 없어서는 안될 인물들이 된 것처럼, 내가 세워주고 격려해주어야 할 마가와 사울 같은 자들을 찾아봅시다)*
 - 2. 무심코 하는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함으로 그 열매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나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삶에서 본 적이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로 힘을 얻은 경험을 나눠보십시오. 정말 그 분의 축복대로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 암송 구절: 잠언 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 자녀와 나눔:
 - 1.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나고 좋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은 자신들을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힘이 났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시고, 자주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 2. 내가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싶은 사람들/친구들을 떠올려 봅시다. 어떤 말을 전해 주고 싶나요?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소그룹 교재 4: 1 월 24 일

- 제목: 짧은 인생을 보람 있게 살려면
- 본문: 전도서 2:1-11

- 찬송가
 - 1. 새 409 장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
 - 2. 새 484 장 (통 533 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 3. 새 80 장 (통 101 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 여는 질문: “나를 위하여”했던 일들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일은 무엇이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없다면 없었던 이유는?)
- 본문 이해: 전도자는 짧은 한 평생을 가장 보람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도 해 보았고,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 궁전도 지어 보았고 여러 곳에 포도원과 과수원도 만들었습니다. 나무들이 자라나 숲이 되었고 저수지도 만들었습니다. 수 많은 종들을 부리기도 했고, 많은 소와 양 떼들을 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수 많은 첩들도 거느리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누려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취와 재물들, 쾌락들에 만족을 느끼고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점점 이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듯한 무익한 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11 절). 전도자는 일에서, 성공에서, 술과 쾌락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궁극적인 만족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시적인 만족은 있었지만 그 만족은 지속되지 못했고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가 만족과 행복을 추구했던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7 세기의 프랑스 기독교 철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동기라는 겁니다. 행복 추구는 인간의 본성이자 마음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행복과 보람을 추구하는 일 자체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4 절부터 8 절 사이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일의 성공과 성취와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모든 동기의 최종 목적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길은 “나” 자신을 추구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추구할 때 그분으로부터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옵니다. 전도자가 깨달은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의 해보다 오래 남을 목표는 오직 하나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분을 위한, 그분에 의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일과 성취와 성공과 쾌락으로 인해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의 수고에 대한 몫이 됩니다(10 절).

- 말씀 속으로

- 1. 전도자가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 시도한 일들은 무엇이었나요? (4-8 절) *(궁전 짓기, 포도원 가꾸기, 정원과 과수원 만들기, 온갖 과일나무들을 심기, 저수지 만들기,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 은과 금을 모으기, 남녀 가수들을 거느리기, 처첩들을 거느리기)*
- 2. 전도자가 수많은 일들을 이룬 후에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요? (11 절)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음)*

- 삶 속으로

- 1. 일의 성공과 성취, 물질의 소유, 쾌락 중에서 지난 삶을 돌아보며 내가 만족과 보람을 얻고자 했던 영역은 어디였나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나요?
사람들은 저마다 욕구가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개인의 성취와 성공을 추구하지만, 어떤 이들은 물질의 소유, 혹은 인기와 명성과 명예, 혹은 힘과 권력, 그리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내 자신은 이 중에 무엇이었는지 돌아봅시다)
- 2.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재산을 모으며,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일은 수고한 자에게 주어지는 몫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고백 대로 그 몫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궁극적인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데 파생하는 부수물이거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삶의 목적이 될 때, 그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허무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갖되, 그것들에게 매몰되지 않으며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헌신하는 삶,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야말로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 암송 구절: 전도서 2:11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 자녀와 나눔:

-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이나 누리고 싶은 것들은 무엇인가요? 2 장을 읽으며 혹시 바뀌어진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소그룹 교재 5: 1 월 31 일

- 제목: 내 사랑은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 본문: 아 2:8-17
- 찬송가
 - 1. 새 90 장 (통 98 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2. 새 89 장 (통 89 장) 샤론의 꽃 예수
 - 3. 새 305 장 (통 405 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여는 질문: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혹은 연인, 부부)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지난 신앙 생활을 돌아보며 가장 주님과 나 사이에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때를 나눠보세요. 그러한 감정이 없었다면 가장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겼던 때도 좋습니다)*
- 본문 이해: 2 장에 묘사되는 곳은 꼭 에덴 동산을 보는 듯 합니다. 그곳은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나며 새가 노래하며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뿜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여인을 그곳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시는 초대입니다. 그분은 일어나서 노예의 사슬을 벗어 던지고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또한 이는 문 밖에 서서 이스라엘이 밖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문을 두드리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계 3:20). 2 장에서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무지하고 죄인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시고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은 선재하시는 은총으로 인해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그 여인을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교회를,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14 절). 그분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연인 사이의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16 절). 이것은 십계명의 제 1 계명의 다른 표현이며, 또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의 아가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두 연인 사이를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15 절). 그 사랑하는 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아 보이는 그 여우가 그들의 포도원을 망쳐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겔 13:3-4). 주님은 연인인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고 싶어하십니다. 그 분은 우리 없이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을 발견하기 전까지 쉴 수 없습니다.” 그분도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도 그 분 없이 온전한 쉬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 말씀 속으로

- 1. 여인이 연인으로부터 초청 받은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12-13 절) *(푸른 열매가 익은 무화과 나무와 꽃을 피워 향기를 내는 포도나무가 있는 땅)*
- 2. 연인 사이의 관계를 허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5 절) *(작은 여우)*

- 삶 속으로

- 1. 사랑하는 연인인 주님은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며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야 할 내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개인/가정/교회/지역사회 등) *사랑하는 연인인 주님은 집 안에 있는 여인을 상징하는 우리를 밖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내가 편안한 자리,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온갖 꽃향기가 풍겨나는 땅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사실 그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연인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자체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다음 단계의 레벨의 관계로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 혹은 가정이 성장해야 할 방향 (가정 예배? 자녀와의 더 깊은 대화?), 교회 안을 넘어서서 지역 사회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 등,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도전을 나눠보십시오)*
- 2. 나에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그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작은 여우는 작아서 포도원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지만, 실은 그 작은 여우가 모든 포도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여우는 나의 분주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나쁜 습관이나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여우는 바로 나와 주님과 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갑자기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서서히, 그리고 천천히 마멸시킵니다. 누군가에게는 미루는 습관이 작은 여우가 되어 말씀도 미루고, 기도도 미루고, 전도도 미루다가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 암송 구절: 아 2:16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 자녀와 나눔:
 - 나와 예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작은 여우”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 작은 여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